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9. 4.(금)	사진·영상	사진(O), 영상()
보도일자	2026년 9월 4일(금)부터		
담당부서	의회운영위원회	담당자	박대중 전문위원(044-300-7410)
			김희수 주무관(044-300-7416)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선임**

- ‘만장일치’ 선임…지방의회 공동 현안 해결 위한 가교 역할 기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세종시의회의원이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첫 여성 의회운영위원장에 이어 협의회 사무총장까지 맡으며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만장일치로 선임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전국 16개 시·도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예정이다.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주신 만큼 개인적인 영예보다 책임의 무게를 크게 느낀다”며 “각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의회가 함께 풀

어야 할 과제를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가 본연의 견제와 감시, 정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현안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세종시 의원 최초로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은 만큼 전국 지방의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